

미래형 자동차산업 일자리창출 방안 모색

전북도·전북대, 고용안정 선제대응 위한 패키지 포럼 개최... 지원 방안 구체화해 고선포 사업 등 반영기로

전북도와 전북대학교는 고용안정 선제대응을 위한 패키지 포럼을 27일 라한호텔 은고을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이하 고선포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의 미래형 자동차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연계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또한, 변화하는 자동차산업에 발맞춰 고선포사업 뿐만 아니라, 전북도 일자리창출 정책 수립방향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는 박경민 전주비전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의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의 '친환경 자동차 밸류체인 구축과 일자리창출' 순으로 진행됐다.

박경민 교수는 "전북은 자동차산업 가치사슬, 연구기반 구축 등 산업인프라에 강점이 있지만, 우수인재 및 시장창출 역량 부족의 어려움이 있어 타 산업과 접목을 통해 시장 창출의 기회를 늘리고, 지역 인력양성 공급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항구 연구위원은 "전북 자동차산업 기술인력이 2019년에 감소했다"며 "자동차산업의 전장화 및 디지털화 대응 능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비한 재교육 훈련을 통해 인력 재배치와 신규 일자리창출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도와 전북대학교는 고용안정 선제대응을 위한 패키지 포럼을 27일 라한호텔 은고을홀에서 개최했다.

이어, 토론에는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연구원, 글로벌자동차대체부품산업협의회 등 자동차산업 및 고용 관련 기관의 관계자와 기업체 대표 등 토론자 6명을 비롯해 40여 명의 지자체 관계자와 수행기관 담당자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미래형 자동차산업과 일자리창출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각기 다른 시각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일자리창출 방안을 논의하며, 고선포 연계 일자리창출 지원 방향, 자동차산업 전환에 따른 인력양성 및 일자리 관련 과제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미래형 자동차산업 관련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고선포 사업 등 일

리 지원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종훈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우리 지역이 중점 육성중인 미래형 자동차산업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인력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포럼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방안을 토대로 일자리 지원책을 마련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전북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7개 시·군 10개 상수원 보호구역이며, 단속기간은 오는 8월

27일까지다.

도는 시·군 건축과, 식품위생과 등 인·허가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했다.

이에 상수원보호구역내 무허가 건축

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영업), 불법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및 기타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세차 등 금지행위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도는 단속결과 무허가 불법 건

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1회성 단속이 아닌 불법행위 근절시까지 지속 추적·관리할 계획이다.

1차 고발조치 후에도 불법 영업행위,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사항이 지속될 경우, 추가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이행실태 합동점검

전북도가 시·군과 함께 투명페트병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공동주택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제도기간(2020.12.25~2021.6.30)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거함 설치와 분리배출 이행실태를 집중 확인한다고 27일 밝혔다.



충분한 제도기간을 거친 만큼, 아직까지 분리배출함을 설치하지 않거나, 분리배출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공동

주택 관리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위반으로 최고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이행실태는 물론, 전반적인 배출·수거·처리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마련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올해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단독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전 홍보를 강화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의 조기 안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동영상을 활용해 TV, 라디오 방송, 유튜브, SNS 등에 집중 홍보하고, 공공기관, 학교 등 각종행사, 교육 등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한다.

또 도내 73개 공동주택단지과 재활용 동네마당 등 단독주택 폐기물거점 배출지역 227개소에 배치·운영중인 1,254명의 자원관리도우미를 활용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제철제맛' 복숭아, 하루 만에 완판

거시기장터 4시간 · 11번가 8시간 만에 매진 기록

전북도는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 (재)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추진한 거시기장터 '제철제맛' 제3탄 복숭아 편이 만 하루 만에 완판됐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제철제맛' 기획전은 온라인에서 우수한 전북 제철농산물을 홍보하고, 지속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무주 앞섬마을 복숭아를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판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준비한 복숭아 2,000상자가 모두 선택받기까지는 24시간이 모자랐다.

거시기장터에서는 개시 4시간 만에, 거시기장터 외부채널인 11번가에서는 화요일 개시 8시간 만에 모두 팔려 3회 연속 조기 완판 기록을 달성했다.

홍행 이유로 맞춤형 타겟 설정이 주요했다.

MZ세대 소비층은 '딱복과'(딱딱

한 복숭아)와 '물복과'(부드러운 복숭아)로 나뉘어 있다.

높은 당도 위주의 기존 관측과 차별화를 위해 제철제맛 복숭아는 아삭한 식감을 살려 기획 초기부터 철저하게 '딱복과'를 겨냥했고 예상대로 이에 대한 소비자 문의가 이어졌다.

또한, 고객의 우려가 배송과정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상품의 이중 포장, 무료배송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제철제맛 기획전에 대한 고객의 사랑이 이렇게 뜨거울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품목 선정과 기획전 운영에 힘써준 전북농협과 경진원이 함께 만든 성과이며, 고객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큐레이션 서비스를 준비하겠다. 8월 제철제맛도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 농산물검사소 운영 시작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잔류농약 신속검사 · 안전성 강화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전주시 송천동 소재 전주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담당할 '전주 농산물검사소'를 개소하고, 장비 설치 및 안정화 기간을 거쳐 정상운영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주 농산물검사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안전관리강화 방안으로 국비 7억, 도비 10.5억, 시비 9.45억 원을 투입해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됐다.

농산물검사소는 전문 분석인력 교대 근무로 24시간 상시검사 체계로 운영된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등 첨단분석장비 26종도 갖췄다.

이에, 농산물검사소는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농약검사 전문기관으로서 전주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신속검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유택수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선제적인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로 유해농산물 유통을 차단해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매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해 농산물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고창군 공고 제2021 - 1296호

고창 세영개발(주)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하여 「고창 세영개발(주)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고창 세영개발(주) 석산개발사업
 - 나. 위치 : 전북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 산64-2번지 일원
 - 다. 계획규모 : 총면적 23만4,413㎡(기허가부지 5만3,259㎡, 신규개발지 18만1,154㎡)
-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2021. 7. 28. ~ 2021. 8. 24.
 - 나. 공람장소 : - 고창군 산림공원과, 성송면사무소
 - 장성군 환경위생과, 삼계면사무소
- 설명회 개최
 - 가. 일 시 : 2021년 8월 04일(수) 10시00분
 - 나. 위 치 : 전북 고창군 성송면 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2층
 - 다. 내 용 :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설명
- 주민의견제출
 - 가. 제출기간 : 2021년 8월 31일 까지(공람만료일로부터 7일까지)
 -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용지에 작성 후 성송면 사무소 또는 고창군 산림공원과에 직접 또는 우편(고창읍 중거리당산로 74-12), FAX(063-560-2709)등으로 서면제출
 - 다. 제출의견 :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 방안
 - 라. 기타사항 : 기간내 의견(공청회 개최여부 등 포함)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합니다.
- 기타사항
 - 본 설명회는 중앙-계단안전대책본부 방역대책을 준수하여 개최하며, 이에 따라 설명회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개최일 14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 위와 관련하여 설명회 장소의 참석 인원제한이 예상되며, 원활한 설명회 진행을 위해 진행인원의 안내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설명회는 비대면(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 등은 고창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산림공원과(☎063-560-26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26일 고창군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